

## News

### 은행수 "은행 배당 축소...관치 논란 없애려 가이드라인 준 것"

아시아뉴스24

금융위원장은 배당 축소 권고에 대해 투명한 의사 결정을 바탕으로 명확한 지침을 만든 만큼, 오히려 은행들이 주주들을 설득하기 쉬울 것이라는 의견  
금융위원회는 스트레스 테스트로 장기침체 시나리오인 L자형을 통과한 회사는 20%를 넘어도 좋다고 했는데, 이거보다 명확한 지침이 어디 있겠나라고 밝힘

### 커브 스티프닝... "긴축 발작 위험 줄여...은행주 강세 지속"

연합인포맥스

장기물 국채수익률이 단기보다 훨씬 빠르게 상승하면서 지난해 8월 이후 30년물 미 국채수익률은 73bp 급등. 20년물 수익률은 77bp, 10년물은 63bp 증가  
투자전문 주간지 배런스에 따르면 은행주가 계속해서 강한 흐름을 나타낼 수 있다고 전망 은행의 순이자 이익은 수익률 곡선이 가파를 때 늘어나기 때문

### 은행원 2500명, 돈다발 안고 집으로... '고용 빙하기'에 집 쌀 만큼 두둑?

한국일보

5대 시중은행(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은행)의 총 희망퇴직자 수도 지난해 이맘때(1,750여명)보다 크게 늘어난 2,500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  
코로나19가 불러온 '역대급' 고용 한파가 지속되고 있지만, 하지만 퇴직직원에 대한 보상 수준을 유례없이 크게 높였다.

### 펀드판매도 금융 회장 책임...금감원 무리한 중징계 '파문'...금융사는 대대적 소송전 예고

매일경제

금융권에서는 사모펀드 부실판매와 관련해 금감원의 부실 감독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으면서 금융사에만 책임을 덮어씌운다며 감독당국의 행태를 비판  
금융권 최고경영자(CEO) 징계와 관련해 금융회사와 금융감독 당국 간에 대규모 소송전이 예고돼 주목된다.

### 금융위 "증권사 4곳 무차입공매도 혐의 조사 내달 마무리"

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시장조성자인 증권사 4곳의 무차입 공매도 혐의 등에 대한 조사를 내달 중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금융위는 1분기 중 조사를 마무리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금융위, 보험사 헬스케어 진출 논의 TF 개최

헤럴드경제

금융위원회는 4일 관계부처와 헬스케어업계, 보험업계 등과 함께 '보험업권 헬스케어 활성화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개최  
"앞으로 건강데이터와 금융데이터의 융합 촉진, 보험업계의 디지털 헬스기기 활용 확대, 행정정보 공동이용망 활용 등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발표

### '신사업 족쇄' 찬 3세 김동원...한화생명 '금감원 중징계' 불복 소송

연합인포맥스

한화생명이 대주주 거래 제한 위반 등의 책임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중징계(기관경고)'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  
앞서 한화생명은 대주주에게 약 80억 원을 무상지원하는 등 대주주 거래제한 위반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경고'의 중징계를 받은 바 있다.

### NH투자증권, 1천억 ESG 채권 모집에 6천200억 몰려

연합인포맥스

NH투자증권이 국내 증권사 가운데 최초로 원화로 사회적 책임투자(ESG) 채권을 발행에 성공  
4일 금융시장에 따르면 이달 16일 1천억원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할 예정인 NH투자증권의 수요예측에 6천200억원의 자금이 유효수요로 잡혔다.

####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